

동북작가 관모난의 문학창작 연구

— 만주국에서 신중국까지

김혜주*

— 목 차 —

1. 들어가며
2. 동북작가 관모난
 - 1) 하얼빈 좌익문학사건(哈爾濱左翼文學事件)
 - 2) 항련문학(抗聯文學)
 - 3) 소수민족 출신 작가
3. 관모난의 문학 창작
 - 1) 사회주의에 관한 관심과 열정:
「兩船家」(1939), 「地下的春天」(1939)
 - 2) 항련 활동의 구체상:
「仇敵」(1946), 「鵝頭和李海」(1947)
 - 3) 고뇌하는 혁명가:
「紫花與紅葉」(1979)와 「哈爾濱之夜」(1980)
4. 나가며

국문초록

‘만주滿洲)/동북(東北)’ 지역은 ‘식민’에서 ‘냉전’으로 진입하며 통치방식과 생활양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지만, 그간 문학연구에서 전전(戰前) 만주국 시기와 전후(戰後) 중화인민공화국의 전환을 연속성에서 고찰하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역 문학으로서 ‘만주/동북’에 관한 연구는 만주국 시기와 신중국 시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전환기에 동북의 문인들을 통찰하는 공시적인 시도가 부족한데, 그 연

* 이화여대 강사.

결 고리로서 소개할 수 있는 작가가 바로 관모난(關沫南)이다.

관모난(關沫南, 1919~2003)은 만주국 시기부터 신중국까지 꾸준히 문학 창작에 종사한 대표적인 동북출신 작가로, 그의 문학 창작 생애는 ‘하얼빈 좌익문학사건(哈爾濱左翼文學事件)’, ‘항련문학(抗聯文學)’, ‘소수민족 출신 작가’라는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41년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그는, 신중국 건국 이후 동북의 지하 공산당 조직과 항일민주연군(抗日民主聯軍)의 투쟁의 역사를 그린 ‘항련소설’을 본격적으로 창작한다. 1980, 90년대 들어 지역문화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만주족’ 출신 소수민족작가로 평가되며 그의 작품 창작이 새롭게 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의 소설 「兩船家」(1939), 「地下的春天」(1940)은 1930, 40년대 계급갈등과 빈부격차를 묘사하며 당시 자본가와 대도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소설 「仇敵」(1946), 「鵝頭和李海」(1947)은 항일유격대와 인민해방군에 투신하게 된 과정을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비교를 통해 그려낸다. 소설 「紫花與紅葉」(1979), 「哈爾濱之夜」(1980)에선 지하 당 활동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대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개인의 삶과 이에 대한 고뇌와 성찰을 드러낸다.

키워드: 관모난, 만주, 동북, 소수민족작가, 항련문학

1. 들어가며

중국 역사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국내 봉건주의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해방, 국외 세력의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기록된다. 사회주의국가로서 ‘신중국’의 출발은 철저하게 봉건성, 식민성에 대한 종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식민에서 냉전으로 시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자는 내적인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 속에서 그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중국의 ‘만주(滿洲)/동북(東北)’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세운 ‘만주국(滿洲國, Manchukuo)’에서 공산당의 전체적 통치구조를 갖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변화를 거치며 식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한 대표 지역으로, 식민과 내전 사이의 연속된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

20세기 한국인들이 ‘만주’라고 통칭한 이 지역은 중국에서는 라오둥(遼東), 동북(東北), 관둥(關東)이나 관외(關外)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19세기 후반부터 서구열강의 중국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자 ‘만주/동북’ 지역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과로 이 지역의 철도 부권과 관리를 둘러싸고 각기 러시아 군대와 일본군대가 주둔하였고 새로운 문화가 함께 이식되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 이후, 동북 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다시금 1932년 괴뢰국 만주국을 만들어 식민통치를 본격화한다. 일본의 만주국 기획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대규모 산업시설 구축에 열을 올렸고, 1940년대 들어 일본의 전쟁 수행 지역 확장됨에 따라 만주국은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군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1945년 일본의 항복 당시 ‘만주/동북’ 지역은 중국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고, 이러한 동북을 접수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경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빠르게 동북을 장악하며 승기를 잡은 쪽은 공산당이었고,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1950년대 신중국성립 이후, 공산당은 친일잔재 청산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만주국 시기 남겨진 산업 시설과 각종 인프라는 자본집약형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동북은 공업의 중심지로서 1950~70년대 ‘공화국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반(半)식민지에서 공화국의 장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주’는 인구 규모의 변화, 행정구역 변화 등을 통해 ‘동북’으로 그 명칭이 변하였다.

이같이 역사의 변화 속에 ‘만주/동북’ 지역은 ‘식민’에서 ‘냉전’으로 진입하며 통치방식과 생활양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지만, 그간 문학연구에서 전전(戰前) 만주국 시기와 전후(戰後) 중화인민공화국의 전환을 연속성에서 고찰하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만주/동북’ 각 지역에서 세력 간의 착종하는 공간 접수상황, 소련군 점령 시기, 국민당과 공산당 분할 시기, 공산군의 공세기라는 시시각각 격변하는 과정은 현재 역사적 연구 성과

위에 문학과 문화장에서의 자료를 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지역 문학으로서 ‘동북문학’은 이 지역의 정치 상황과 인문지리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간 중국의 ‘동북문학’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북문학’ 연구에서 ‘만주국 시기’ 문학 연구가 미흡하다. 문학 창작 연구의 관점에서 ‘만주국’ 시기는 ‘윤함구(淪陷區)’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치적인 이유에서 관련 연구가 진척되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항일’을 동북문학의 대표적 특징으로 기술하여 ‘동북작가군’의 창작을 가장 우수한 문학적 성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동북문학’ 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둘째, ‘만주국’과 ‘신중국’으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 문인(만주국 출신) 중심이 아닌 서북(西北)이나 옌안(延安)에서 온 문예 공직자들의 활약으로 ‘쇠락’ 또는 ‘붕괴’한 문학이 ‘재건’되었다는 기술을 펼침으로 ‘사회주의 문예 전통의 이식’이란 측면이 두드러진다.¹⁾ 이는 봉건성, 식민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사회주의 시기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긴밀히 연결되며, 문학 창작과 연구에서도 동북 지역에서 자생한 문학이나 문화의 영향력은 지워진 채, 사회주의 문학 계보 안에서 의미와 영향을 따져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동북문학’의 발전을 ‘5.4신문학-좌익문학-사회주의 문학’이란 중국 현대 문학사의 서술 계보 속에서 투영시키려는 노력에서 두드러진다. 요컨대, 지역 문학으로서 ‘만주/동북’에 관한 연구는 만주국 시기와 신중국 시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전환기를 동북 출신의 문인들을 통해 관찰하는 공시적인 시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북지역의 문학 창작과 문화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폭넓은 역사 자료와 문학 작품을 통한 분석과 고증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동북 출신 작가 관모난(關沫南)을 소개하면서

1) 만주국 붕괴 이후 국공내전 시기에는 공산당 점령지역인 동북해방구(서만과 북만)과 국민당 점령지역(동만과 남만)의 지역적 분할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문학사 서술에선 동북해방구를 중심으로 기술된 편향성이 있다.

미력하나마 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관모난은 만주국 시기부터 신중국 시기를 거치며 ‘만주/동북’에서 활동한 지역 작가로, 그의 삶과 창작을 통해 지역의 변화상과 ‘동북문학’ 발전의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²⁾

2. 동북작가 관모난



관모난(關沫南, 1919~2003)의 본명은 관동연(關東雁)으로 1919년 11월 14일 지린성(吉林省) 용지현(永吉縣) 샤오란둔(小蘭屯)의 만주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상 대대로 관료 출신 집안이었으나 군인이었던 아버지 대에선 이미 쇠락한 상태였다. 관모난은 한 살부터 여덟 살까지 부모를 따라 여성작가 샤오홍(蕭紅)의 고향 후란(呼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이후 북방 도시 하얼빈(哈爾濱)으로 오게 된다. 1931년 그가 동성구립(東省區立) 제8소학(第八小學)과 제1소학(第一小學)에서 공부할 때 9.18 사변이 일어나 선양(瀋陽)이 점령됐고, 이듬해 2월 하얼빈(哈爾濱)도 점령되어 하얼빈 곳곳이 재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관모난은 중학교 1학년이던 열네 살 때, 당시 『하얼빈공보(哈爾濱公報)』에 보가이(泊巧), 동연(冬雁)이란 필명으로 「후란여유만기(呼蘭旅遊漫記)」, 「마가화원유기(馬家花園遊記)」란 산문을 발표하며 창작 재능을 처음 선보였다. 1935년에는 ‘모난(沫南)’이란 필명으로 하얼빈, 창춘(長春)의 신문에 산

2) CNKI에서 ‘關沫南’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총 22편의 논문이 검색되며, ‘관모난’ 이름으로 8편, ‘동북연합시기’로 2편, ‘항일연군’으로 2편, ‘만족작가/ 만주문학’ 5편 등이 확인된다.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동북지역 학교나 소수민족 관련 학교 소속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관모난의 저작이 비교적 풍성한 것에 비해 중국 내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2023년 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에서 옮긴 『만주국 시기 중국소설』에서 번역된 두 편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는 아직 없다. 참고, <http://cnki.net> 2024. 10. 09 검색.

문, 단편소설 또는 독막극(獨幕劇)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그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1938년 봄부터 우정국(郵政局)에서 말단직원으로 일하며 여섯 식구를 부양했다. 관모난의 첫 번째 소설집 『차타(蹉跎)』는 그가 열여덟 되던 1937년 하얼빈의 정익인서국(精益印書局)에서 출판됐다.

관모난은 1941년 12월 ‘하얼빈 좌익문학사건(哈爾濱左翼文學事件)’으로 체포되어 3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부터 다칭유전(大慶油田)에서 생활하였고, 문혁의 폭풍을 맞아 모진 고난을 받다가 문혁이 끝날 때쯤 하얼빈으로 돌아와 원래 있던 직장으로 복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헤이룽장성 문련 부주석, 『북방문학(北方文學)』 주편 등을 맡았으며, 다양한 문학평론, 산문, 소설을 발표하며 동북 문단에서 활약하다가 2003년에 생을 마감했다. 동북 출신 문인인 관모난의 삶과 창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중요 사건과 키워드를 연결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하얼빈 좌익문학사건(哈爾濱左翼文學事件)

관모난은 만주국이 들어선 1937년 하얼빈 거리 책 가판대에서 왕충성(王忠生), 관위화(關毓華) 등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거처에서 관위화의 주도로 몇몇 문학청년들과 함께 ‘좌익문학소조(左翼文學小組)’(‘독서회(讀書會)’ 또는 ‘하얼빈 마스끄스주의 문예학습소조(馬克思主義文藝學習小組)’라 불림)라는 모임에 참여했다.³⁾ 이 ‘독서회’의 참여자는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왕광티(王光逖)(또는 진밍(金明), 스마상둔(司馬桑敦)) 외에도, 관모난, 천장(陳隆), 아이

3) 이 ‘독서회’ 모임은 세 명의 공산당원의 발기와 책임 아래 유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얼빈시 교통회사(交通公司)에서 근무하며 지하공작에 종사했던 관위화(또는 천즈(陳紫), 일찍이 난창폭동(南昌暴動) 등 혁명에 참가한 바 있던 중공 초기 여성당원), 링스퇴(伶世鐸)(또는 링성위(伶醒愚), 상하이 ‘좌련’의 멤버)와 친잔야(秦占亞)(필명 샤오신(小辛), 베이핑 당조직에서 비밀리 하얼빈으로 파견)가 그들이다.

둔(艾循), 사위(沙鬱), 덩닝(丁寧) 등 좌익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 이들은 모여 『대중철학(大眾哲學)』, 『유물론정법(唯物論辯證法)』 (일역본), 『자본론(資本論)』 (제1권) 등 정치철학 서적을 학습하고, 막심 고르키(Maxim Gorky), 루쉰(魯迅), 코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 등 중외 저명작가들의 대표작을 함께 읽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은 당시 일본 침략에 맞서 동북지역 수복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려고 ‘신성(新星)’이란 연극 극단을 조직하여 남송의 명장 ‘악비’를 소재로 한 「만강홍(滿江紅)」이란 극본을 썼으나 정치적 의도가 알려지며 무산된 바 있다. 독서회에 참가했던 멤버 중 관위화, 친잔야, 등스뉘는 이후 관내 허베이성 남동부와 산둥성 북부에 위치한 ‘지루변구(冀魯邊區)’의 공산당과 팔로군 지휘의 항일유격대 투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41년 12월 9일 진주만 미군 기지의 습격 이후 태평양전쟁 발발하자 만주국 내 일본의 식민통치 역시 나날이 강화되었다. 12월 중하순 무렵, 일본 당국은 만주국 전 지역에 두 차례 대규모 체포를 감행했고, 특히 하얼빈에서 그 체포 규모가 컸다. ‘불안정분자’로 보이는 문인들이 집중 대상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하얼빈 좌익문학사건(哈爾濱左翼文學事件)’이다. 12월 31일 밤, 관모난은 하얼빈 경찰청의 일본 경찰 다섯에게 둘러싸여 복면에 씌워진 채 모처에 구금 당했다. 당시 관모난 외에도 천티(陳隄), 왕광티가 체포됐고, 이후 아이둔, 사위, 덩닝 등 십여 명의 ‘독서회’ 회원들이 줄줄이 붙잡혀 왔다. 일본 본부에 ‘위험분자’ 명단에 오르게 된 관모난은 이후 만주국 수도였던 신징(新京, 현 창춘)의 ‘수도경찰청’으로 압송되어, 하얼빈과 신징에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한다. ‘펜을 든 공산당 일파(拿筆的共匪)’, ‘백성에게 정부 반대를 선동한다(煽動百姓反對政府)’, ‘대동아공영 사업을 망가뜨린다(破壞大東亞共榮事業)’라는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됐고⁴⁾, 일본어로 번역된 그의 몇몇

4) 당시 붙잡힌 사람들은 좌익작가나 유격대 대원들이 대다수였으며, 그 밖에 만철의 좌익 잡지 『만주평론』의 편집자나 건국대학(建國大學)의 교수도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관모

작품이 죄명의 증거가 되었다.⁵⁾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은 만주국 시기 중국 문학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2) 항련문학(抗聯文學)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14년 동안 점령했던 만주/동북은 자유가 되었고, 3년 감옥에 갇힌 후 1944년 10월 다시 5년의 감외감시(監外監視)를 선고받고 가석방되었던 관모난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 당시 그는 지린(吉林)의 이통현(伊通縣) 동젠산둔(東尖山屯)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해방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창춘으로 가 지하 당 조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창춘은 소련군이 임시 관리하고 있었지만, 공산당은 지하 조직 상태로 진입해 있었고, 국민당 역시 동북 지역 점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관모난의 아버지가 공산당의 국제연합 조직인 제3국제(第三國際)의 정보병을 맡았던 이력으로 관모난은 창춘에서 소련군의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당시 스물여섯 나이에 일본군 창고에서 남은 종이로 소련군 세력을 이용해 『신군(新群)』이란 잡지를 창간하며 편집을 맡는다. 그는 『신군』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혁명문학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투옥 이전 생활을 알리는 『나 그리고 문학, 감옥 생활(我與文學與牢獄)』 같은 장편의 보고문학을 쓰면서 지하 공산당 조직에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신군』 창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공 창춘지구 공작위원회(中共長春地區工委)에서 파

난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투옥된 시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식사를 거부하며 투쟁했고,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고문을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몇몇은 731부대로 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관모난은 살아남기 위해 공산당과의 관계는 부정하며 그저 소련 문학 서적을 좋아하고 공산주의 정신에 따라 글을 쓰려고 한 일개 좌익작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운 좋게 창춘으로 압송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가 창춘으로 압송된 것은 당시 일본군이 공산주의 작가를 신기하여 여겨 관찰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 참고, 秋石, 「雪壓青松憶沫南」, 『新文學史料』, (02), 2006. p.183.

5) 관모난의 작품 중 1939년에 발표된 「兩船家」와 1940년에 발표된 「某城某夜」는 일본 작가의 번역을 통해 일본어로도 발표되었다.

견한 인사와 연락이 닿았고, 1946년 12월 관모난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동북작가연맹(東北作家聯盟)의 주재회의 집행위원(駐會執委)을 맡게 된다.

그 후 하얼빈으로 돌아온 관모난은 건국 이전 항일민주연군(抗日民主聯軍, 이후 항련으로 표기)⁶⁾ 책임자인 평중원(馮仲雲) 장군과 리자오린(李兆麟) 장군이 지도하는 쑹장성(松江省) 인민정부에서 잠시 비서로 일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항일 시기의 동북 지하당과 항일민주연군의 투쟁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건국 초기에 그는 동북 열사기념관(東北烈士紀念館) 계획 수립 지도 사업에도 참여하여, 동북 지하당 및 항련과 관련된 진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의 항련소설 창작에 기초를 이루었고, 그의 창작은 동북의 역사와 문학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⁷⁾

또한, 관모난은 투옥된 3년 동안 공산당원이나 항련 병사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전해 듣고 배운 것으로 알려진다.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그는 두 편의 장편소설 「모래밭의 가을(沙地之秋)」과 「안개 내릴 무렵(落霧時節)」을 『대북신보』와 『빈강일보』에 연재 중이었는데, 이 소설들은 그의 초창기 창작 중에서 항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소설로 유명하다. 주목할 것은, 만주국 시기 사회주의를 신봉한 좌익작가였던 관모난이 신중국 건국 이후 본격적으로 1930,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항련 소재의 소설을 발표하며 항련소설 창작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모난의 선택은 신중국 이후 여러 번의 연속된 문예계의 비판

6) 동북항일연군(抗日民主聯軍)은 중국공산당이 직접 지도했던 항일무장세력으로, 동북의용군 세력, 동북반일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1931년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는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했다. 1935년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내전을 멈추고 항일참여를 독려하는 '8.1'선언을 발표했고, 1936년 2월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는 지방의용군과 연합하며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였다. 군의 고위 장성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원이었으며, 훗날 중국인민해방군으로 편입된다. 바이두 검색 참조.

https://baike.baidu.com/item/東北抗日聯軍/68556?fromModule=lemma_search-box

7) 秋石, 앞의 글. pp.181-182.

운동 속에서도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던 기반이 되었고, 그의 작품이 대부분 항일문학의 범위에서 알려지고 연구되는 바탕이 되었다. 즉, 관모난의 ‘항일 작가’로서의 면모는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의 투옥 경험과 이후 항련 관련자들과 만남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건국 후 항련과 관련된 작품을 여럿 발표하면서 중국 문단에선 ‘동북 출신’ ‘항일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관모난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1930년대 중엽 이후 자리 잡은 ‘동북작가군’ 보단 연배로서는 아래지만 항일문학 계보 속에서 넓게 ‘동북작가군’에 속한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항일 소재의 작품 창작뿐만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샤오홍의 고향인 ‘후란’과 인연이 있었고, 샤오권과도 친분이 두터워 신중국 이후에도 그와 연락을 유지한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1981년 하얼빈에서 샤오홍 탄생 70주년 활동이 진행되며 중앙 정부에서 샤오홍에게 ‘30년대 좌익여작가’라는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 관모난은 헤이룽장성 문련 부주석의 신분으로 헤이룽장 성위의 이름으로 베이징으로 가 중앙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언급하며 그가 어렸을 적 후란에 있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다. ‘항일’ 소재의 작품 창작은 관모난이 사회주의 문예시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만주국 출신 문인으로서 꾸준히 붓을 들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3) 소수민족 출신 작가

국공내전 시기, 관모난은 자무스(佳木斯), 무단장(牡丹江), 하얼빈(哈爾濱) 등지를 떠돌았지만, 손에 든 펜은 놓지 않았다. 그는 『동북일보(東北日報)』, 『쑹장일보(松江日報)』의 편집위원을 맡았고, 쑹장성 문련, 성 위원회 선전부의 문화 담당 업무에 참여했다. 1954년부터 성 문련과 성 작가협회의 부주석 겸 『북방문학(北方文學)』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1960년 다칭유전(大慶油田)이 개발된 후 중국공산당 안다시(安達市) 사르투구(薩爾圖區) 위원회

부서기를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도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만주국 시기 일본에 의해 3년 넘게 구금된 경험, 제3국체의 정보 병이었던 아버지의 소련과의 관계, 동북이 해방된 후 소련군과의 우정 등이 문제가 되어 그는 ‘소련 수정주의 특무(蘇修特務)’로 낙인 찍혔다. 문혁 초기에 체포 감금되어 여러 차례 고난을 겪었고, ‘문혁’이 끝날 때쯤 하얼빈으로 돌아와 원래 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문혁 이후 문인으로서 관모난의 삶은 항일문학의 대표자 외에 만주족 출신인 ‘소수민족’ 작가의 특성이 부각된다.

1950년대 이래 중국에서 ‘요동(遼東)’이나 ‘만주’는 ‘동북’으로 지역명이 대체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들어 가장 큰 제도적 변화라면 대행정구의 실시와 폐지, 민족구역자치체제의 전면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지방 행정구역으로 보면, 민국 시대에는 성과 현 등의 2급제나 3급제로 중국 전역을 일원적으로 구성하였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들어서 성, 지시, 현시, 향진 4급의 구조를 형성하고, 여기에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해 실시 병행하면서 이원적 구성을 갖추게 된다. 민족구역자치제는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중적인 정체성인, 즉 ‘사회주의국가’와 ‘통일적 다민족국가’ 중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관련이 깊다. 만주국 시기에는 제도상으로 민족 구분이 없던 ‘오족협화(五族協和)⁸⁾에서 신중국 이후 외래 이민과 이주에 따른 토착인, 정착인의 ‘소수민족’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 밖에 동북 출신으로 ‘만주족’ 작가로는 ‘동북작가군’으로 이름 난 수쥘(舒群, 1913~1989) 이외에 리후이잉(李輝英, 1911~1991), 마자(馬加, 1910~2004), 진젠샤오(金劍嘯, 1910~1936), 텐편(田賁, 1913~1946), 시인 덩예(丁耶, 1922~2001)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심근문학’ 등 지역 색채가 짙게 반영된 문학창작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과 문학

8) ‘오족협화’는 ‘왕도낙토(王道樂土)와 함께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다. ‘오족’에는 일본인, 한인, 몽고인, 조선인, 만주인의 다섯 민족이 포함되며, 이들을 상징하는 다섯 색깔을 만주국 국기에다 넣었다.

을 연계시킨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창작은 ‘소수민족’으로서의 문학 창작 그리고 ‘동북’ 지역의 문학 창작이란 각도에서 발견 및 발굴된다.

관모난의 창작 성과로는 산문집 『春綠北疆』, 『春花秋月集』, 장편 『從秘捕死屋開始』, 영화문학극(電影文學劇) 『冰雪金達萊』, 소설집 『在鏡泊湖邊』, 『岸上硝煙』, 『蹉跎』, 『沙地之秋』, 『險境』, 『霧暗霞明』 과 문학이론집 『在創作道路上探索』 등이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은 80~90년대 등장한 다양한 문학 총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총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소수민족상 수상 소설선(少數民族獲獎小說選)』(四川民族出版社, 1983년 3월 출판),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수상작품총서(全國少數民族文學創作獲獎作品叢書)’ 『단편소설집(短篇小說集)』(人民文學出版社, 1983년 5월 출판), 『당대소수민족작가작품선강(當代少數民族作家作品選講)』(吳重陽, 1983년 6월 출판), 『흑룡강단편소설선(黑龍江短篇小說選)』(1949~1979)(雲南人民出版社, 1983년 6월 출판), 『동북문학연구총서(東北文學研究叢書)』 제1집(1984년 8월 출판), 『항일전쟁시기윤함구소설선(抗日戰爭時期淪陷區小說選)』(廣西人民出版社, 1988년 9월 출판), 『당대만족단편소설선(當代滿族短篇小說選)』(關紀新, 王科 選編, 民族出版社, 1988년 10월 출판), 『중국신문예대계·소수민족문학집(中國新文藝大系·少數民族文學集)』(中國文聯出版社, 1991년 10월 출판), 『중국해방구문학서계(中國解放區文學書系)』(重慶出版社, 1992년 3월 출판), 『흑룡강작가총서(黑龍江作家叢書)』(北方文藝出版社, 1992년 7월 출판), 『동북현대문학대계(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張毓茂 主編, 沈陽出版社, 1996년), 『당대만족작가문총(當代滿族作家文叢)』(遼寧民族出版社, 1998년 2월 출판) 등이 있다.⁹⁾

그의 수상 이력을 살펴보면, 1979년 발표한 단편소설 「紫花與紅葉」로 전국 제1회 민족문학상(民族文學獎)을 받았고, 1986년에 출간한 문학창작논집 『在創作道路上探索』(北方文藝出版社 1986년 6월)으로 전국 제1회 민족문

9) 關沫南 著, 『抗戰時期黑土作家叢書·關沫南集』, 哈爾濱: 黑龍江大學出版社, 2011, pp.248-265.

학이론 명예상(民族文學理論名譽獎), 헤이룽장 민간문학 명예상(黑龍江民間文學名譽獎)을 받은 바 있다. 단편소설집 『流逝的戀情』(北方文藝出版社 1992년 7월 출판)은 제3회 만족문학 2등상, 제1회 만족문학 명예상을 수상한 바 있어, '동북'이란 지역 특색뿐만 아니라 '만주족'이란 소수민족 출신 내력이 그의 창작을 평가하는 데 주요하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국 출신의 사회주의 작가이며 소수민족이라는 관모난의 이력은 그의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원이 된다.

3. 관모난의 문학 창작

1992년 북방문예출판사(北方文藝出版社)에서 출간된 『流逝的戀情』은 두 편의 중편작품과 스무 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된 관모난의 소설집으로, 「兩船家」, 「某城某夜」 등 그의 첫 번째 소설집(1933년 출간)에 수록된 작품을 제외하면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인쇄된 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작품이 시간순으로 담겨 있다. 2003년 관모난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간된 소설집으로, 작가의 글쓰기 생애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간 글쓰기 변화상을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본문은 소설집 『流逝的戀情』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관모난의 구체적인 창작 면모를 살펴보면서 '만주'와 '동북'을 잇는 지역 문학으로서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에 관한 관심과 열정: 「兩船家」(1939), 「地下的春天」(1939)

관모난의 글쓰기는 1934년 열여섯 살에 여행기를 신문에 발표하며 시작됐고, 1941년 스물한 살의 그는 작품이 죄의 근거가 되어 일본 특무에게 체포되어 옥살이했다. 그의 창작 생애에서, 체포 이전의 '독서회' 시절은 그가 젊은 혈기로 가장 왕성한 창작을 하던 시기다. '독서회'에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던 진지 중 하나가 왕광티가 근무했던 『대북신보(大北新報)』 부간(副刊)이었는데, 창간호에 관모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학인가(我們需要什麼樣的文學)」란 글을 쓰며 ‘대중이 문학에 요구하는 굶주린 동정을 생각하며, 문학은 반짝이고 눈을 어지럽히는 광대의 눈을 버리고, 질박하고 간소한 전투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大眾向文學要求饑餓的同情, 文學將脫去光彩撩亂的伶人之眼, 而著樸質簡素的鬥士布衣了)’고 언급하며 문학의 전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송수반월간(松水半月刊)』, 『대북풍(大北風)』 전문 간행물을 만들었고, 관모난은 아이둔, 천티, 왕광티, 예푸(葉福) 등과 함께 자주 글을 발표하였다. ‘독서회’ 활동시간에 관모난은 2, 30여 편의 단편소설과 세 편의 중편, 두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뜨거운 창작 열정을 선보였다.

관모난의 이 시기 작품은 첫 번째 단편 소설집 『차타(蹉跎)』를 대표로 하는데, 수록된 총 10편의 작품 중에서 관모난이 8편, 리릉(厲戎) 2편을 썼다. 이 시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봉건적 사상에 반대하는 주제의식을 다룬 작품으로, 「古董」, 「老劉的煩悶」, 「偏方」 등이 있다. 둘째는 일본 통치자, 친일세력, 지주의 억압과 유린 아래 하층민이나 지식인의 처참한 생활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고난과 몸부림, 반항을 그린 것을 들 수 있다. 작품으로 「妻」, 「在夜店中」, 「父子」, 「醉婦」와 「看雲」이 있다.

그중 단편소설 「兩船家」은 당시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관모난의 대표 작품이며, 일본인 만주 문학 연구자인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가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역락, 2008)에서 만주문학을 정리하며 소개한 바 있다. 소설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다. 어제 한밤중에 국제기선을 타고 ‘拐子彎’이란 조용하고 인적 드문 부두에 도착한 ‘나’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천 위안이 든 가방을 들고 고향에 가는 길이었다. 고향으로 갈 큰 배가 없어 발이 묶였고, 결국 민간선박을 찾아서 그곳을 떠나게 된다. ‘나’는 라오자오(老趙)와 샤오왕(小王)이란 두 뱃사공이 모는 배를 타게

되고, 그 가운데 지식인의 말투로 대꾸하는 라오자오를 보며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다. 배에서 잠이 든 ‘나’는 칼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고 라오자오와 샤오왕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발견하지만, 다행히 돈 가방은 그대로였고 라오자오의 해명을 듣고 사건은 일단락된다. 고향에 도착한 ‘나’는 친척들의 만나며 지내다가, 문 앞에서 맨발의 아이가 전해준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편지는 같은 학교 동창생이었던 자오차이민(趙蔡敏)이 보낸 것이었고, 자오차이민이 뱃사공 라오자오였음을 알게 된다. 편지를 받은 ‘나’는 곧바로 부두로 달려가지만 이미 자오차이민은 사라져버린 후였다.

「兩船家」은 자산가 계급에게 압제당한 민중의 고난을 그려낸 소설로, 제목 ‘두 뱃사공’을 보면 작가가 뱃사공의 삶에 주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부유한 자본가인 ‘나’와 육체노동자 뱃사공 자오차이민을 분명한 대립구도로 설정하고, 마지막에 노동자인 자오차이민이 ‘나’에 대한 복수를 훗날로 미루는 아량을 보여주며 마무리한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 좌익작품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회주의에 열심을 품었던 젊은 시절 관모난의 창작 열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소설이 관모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은, 단조로울 수 있는 주제를 자본가 출신 인물을 소설 1인칭 화자인 ‘나’로 삼아 두 대립하는 인물의 관계를 비틀어 극적 반전을 안겨 주면서 성공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화자인 ‘내’가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기 위해 고향을 가는 길임을 초반에 암시한다. 그러나 독자는 ‘나’의 목소리를 따라 ‘拐子彎’이란 작은 부두에 내린 뒤 ‘내가’ 느끼는 불쾌함과 불안함에 동화되어 고향에 가는 여정을 동행한 탓에, 이야기 끝에서야 편지를 통해 화자인 ‘내’가 돈을 믿고 악한 짓을 일삼는 ‘악인’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알고 보니, ‘나’는 자오차이민의 여동생에게 연정을 품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여동생을 해하였고 자오차이민의 집에서 이를 알고 고소를 하였지만 도리어 돈을 써서 자오차이민을 감옥으로 보내고 폭력배를 이용해 자오차이민의 집안을 망하게 한 인물이었다. 마지막에 뒤틀린 관계의 진면모가 밝혀지면서, 소설 속 ‘내’가

고향에 가면서 느낀 모든 감정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독자는 ‘돈’이 만들어낸 계급과 빈부의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고 씩씩한 여운을 느끼게 된다.

만주국 시기 대도시이자 국제도시였던 하얼빈에는 수많은 무국적의 백계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地下的春天」(1940)은 바로 러시아인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류선(劉琛)은 가난한 러시아 커플, 안나와 이안 페트로비치와 커튼을 두고 반(半) 지하 방을 나눠 쓰고 있다. 말단직원이긴 했지만, 이 빈곤한 이국 남녀를 도울 힘이 있던 류선은 그들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안나를 좋아하던 선은 그녀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이안을 보자 그를 속였다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안나는 그날 밤 이후 돌아오지 않았고, 슬픔과 초조함에 안나를 찾아다니던 이안은 결국 선에게 지하방을 떠나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전하게 된다.

안나와의 하룻밤, 선의 죄책감, 안나의 도망, 이안의 선택이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작가는 대도시 하얼빈에서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빈곤 앞에선 똑같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안나가 떠난 이유를 돈벌이하지 못하는 자신 탓으로 돌리는 이안을 보면서, 선은 죄악을 만든 것은 돈이고 결코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에 작가는 러시아 청년 이안이 희망에 찬 마음으로 새 출발을 결심하는 모습을 그리며, 가난하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마음을 ‘힘’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힘’이 없던 중국인 선은, 마지막에 이상한 광채를 뿜는 이안에게 용서받은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의 손에 20위안을 쥐여준다. 마치 돈으로 죄책감을 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의 마무리는 독자들에게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준다. 작가는 벗어날 수 없는 ‘돈(자본)’의 굴레를 보여주려 했을까? 희망을 강조하는 러시아 이국 청년(사회주의)에게 새로운 중국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것일까? 소설이 그려내는 하얼빈의 이국정서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얽혀있어 독자들에게 묘한 여운을 안겨준다. 초창기 이 두 편의 소설은 사회주의에

심취한 십 대 관모난이 계급과 빈곤 문제를 그의 창작에 담아내고자 했던 이상과 신념을 잘 보여준다.

2) 항련 활동의 구체상: 「仇敵」(1946), 「鵝頭和李海」(1947)

관모난은 1941년 하얼빈의 『빈강시보』와 『대북신보』에 「落霧時節」과 「沙地之秋」이란 장편소설을 연재하였지만, 그가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으로 체포되면서 완성을 보지 못했다. 「落霧時節」은 봉건 가족의 몰락을 통해 봉건과 식민지의 동북의 암흑 상을 반영하였고, 「沙地之秋」는 혁명지식인이 암흑통치 속에서 동요와 충격을 묘사하며 실제로 작가가 참가했던 하얼빈의 마르크스주의 소조 성원들의 생활을 담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두 작품은 관모난이 일찍부터 항일문학을 쓰고자 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5년 광복 이후, 관모난은 지하 공산당 조직과 항련 소재에 주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소재의 작품을 써 내려간다. 소설집 『流逝的戀情』에 수록된 「仇敵」(1946)와 「鵝頭和李海」(1947)는 일본군대가 동북 땅을 떠난 후 혼란스러운 동북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그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해 품은 강한 기대를 소설에 투영하고 있다.

「仇敵」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원수를 찾아다니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 속에 결국 새로운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천평(陳鵬)은 집안의 원수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8년 동안 북방의 별판을 헤집고 다니다가 3개월 전에 육체노동자 틈 속에서 10년 전 아버지를 죽인 원수 류진룡(劉金龍)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 깊은 삼림의 벌목현장까지 자진해서 들어온다. 고된 육체노동을 참기 힘들었던 류진룡은 일본인 손님을 위한 환영 연회가 열린 틈을 타 몰래 도망하다가 일본인 관리자에게 발각되고 끌려와 초주검 상태가 되도록 얻어맞는다. 이는 천평이 원수를 죽여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산송장이 된 류진룡을 보자 그를 죽일 마음이 사그라진다. 일본인

벌목회사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고, 결국 벌목회사가 철수하고 노동자들마저 떠나자 류진룡과 천평 둘만 남게 된다. 천평은 항일 무장부대를 만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오랜 시간을 반성하고, 이미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된, 원수 류진룡을 들쳐 엮고 산에서 내려온다.

동북의 산림은 일본 식민세력의 주된 경제 자원이 되었다. 흰 눈으로 뒤덮인 산과 울창한 나무숲은 ‘만주/동북’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특히 만주국 시기 일본인 벌목회사와 중국인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 침략 지배 세력과 내부 억압받는 피지배 민족이란 측면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仇敵」는 동북 산림지대를 배경으로 일본인 임업 회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벌목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려낸다. 마을의 영웅이었던 천평의 아버지는 토비의 주된 공격 대상 되고, 결국 세력이 큰 토비였던 류진룡에게 희생당한다. 10년간 복수를 위해서만 살던 천평은 평생의 원수였던 류진룡을 발견하지만, 기세 좋던 류진룡도 결국 일본인 벌목회사의 늙은 노동자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복수를 위해 같은 현장의 노동자가 된 천평도 똑같은 처지였다. 작품은 일본인 벌목 회사와의 불평등한 지배 관계 속에 고통스러운 노동과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던 중국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며, 식민시기의 동북 지역의 현실을 보여준다.

천평이 쇠락한 류진룡을 들쳐 엮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개인적 원수 역시 식민세력 앞에선 똑같이 꺾박받는 ‘동포(同胞)’였음을 인정하면서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순간을 묘사한다. 이야기는 천평이 류진룡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복수를 포기하고 공산당의 항일투쟁에 참여할 것을 암시하는 결론으로 끝이 나는데, 개인의 복수가 민족의 원한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복수보다 민족/국가의 복수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투영되어 있다.

소설 「鵝頭和李海」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는 토착 지주 세력에게 고통받는 동북 농촌 가정 이야기를 정치 사상범이던 ‘나’의 시선을

통해 그려낸다. 자무스(佳木斯)에서 출발한 기차 안에서 ‘나’는 우연히 팔로군의 군복을 입은 리하이(李海)를 다시 만난다. ‘8.15’ 광복이 되던 해, ‘나’와 처는 감옥에서 풀려난 특무의 감찰 대상이었다. 일본 관동군에게 과거 정치범과 사상범을 다시 잡아들이라는 밀명이 내려지자 처와 장모를 데리고 이통현(伊通縣)으로 도망쳤고, 동젠산쓰(東尖山子) 마을에서 거위 머리처럼 생겨 어터우(鵝頭)란 별명으로 불린 리하이의 아버지 리춘산(李春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어터우는 추지우(楚九)라는 마을의 지주를 위해 머슴살이를 했고, 지주 추지우와 관직을 맡던 황경위보(黃警尉補)은 한패가 되어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국민당이 마을을 진압하고서도 황경위보와 추지우는 이름만 바뀐 채 마을에서 여전히 권력과 위세를 누렸고, 십여 년 넘게 머슴살이를 한 리하이의 가족은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에 희생양이 되어 마을을 떠나고 리하이 역시 인민해방군을 선택한다. ‘8.15’ 다음 해 정월, ‘나’는 창춘에서 리하이를 우연히 만났고 팔로군이 이통현에 와서 구휼 양식을 주고 토지도 나눠 줄 계획이란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창춘에서 리하이를 만난 이후 일여 년이 지나, ‘나’는 기차에서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나’는 리하이와 함께 어터우를 보러 가서 어터우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리하이는 아버지 같은 민초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맘먹는다.

「鵝頭和李海」의 화자인 ‘나’는 정치 사상범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감찰 대상이었던 실제 관모난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소설은 이통현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광복 이후 만주국 일본 식민세력이 사라진 후, 지역을 접수한 국민당의 통치와 그 후 다시 공산당으로 지배 세력이 바뀌는 과정을 묘사한다. 마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던 황경위보와 추지우의 신변 변화는 그러한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동북 지역 접수를 환영하는 작가의 입장이 담겨 있다.

소설의 제목인 ‘어터우와 리하이’는 리춘산과 리하이 부자 관계를 이르며, 전체 이야기는 수난받는 아버지 세대와 이에 맞서 인민해방군이 되어 싸우려는 아들 세대를 그리고 있다. 「仇敵」와 「鵝頭和李海」는 모두 아버지와 아

들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이야기 속에서 관모난은 아버지 세대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아들 세대에게 이를 뛰어넘을 희망을 걸면서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소설 속 천평과 리하이이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는 아들 세대의 대표인 셈이며, 이들이 항일유격대 참가를 결심하거나 인민해방군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가 식민 '만주국'에서 사회주의 '신중국'으로 전환기에 품은 기대와 이상을 살펴볼 수 있다.

건국 전후 관모난이 쓴 항련소설을 살펴보면, 만주국 시기 동북에서 벌인 투쟁과 영웅적 행적들을 그려내어 사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혁명사 가운데서도 진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편소설 「赤腳的人」은 전쟁 속에서 상처받고 낙오한 항련 병사를 그려냈고, 「在鏡泊湖邊」에서는 항련 제1로군 제2사단장 만주족 애국 항일장군으로 알려진 천한장(陳翰章)을 묘사하며 항일 영웅의 이미지를 재현해 낸다. 그의 소설은 60년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1957년 3월 『하얼빈문예(哈爾濱文藝)』에서 연재된 단편소설 「氷上」은 이후 「松花江的風雪」이란 영화 극본으로 개작하여 『하얼빈문예』 제10-12기에 연재된 바 있다. 이 작품이 1963년 한 차례 수정되어 그해 7월 『電影文學』에 실렸고, 1964년 산장춘영화제편창(山長春電影制片廠)에서 영화로 제작하여 <冰雪金達萊>란 제목으로 전국 상영되었다. '김달래(金達萊)'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일본 식민세력을 피해 만주로 온 조선인이 중국인과 함께 항일운동에 투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조선족 출신 배우 이송죽(李松竹)이 주연을 맡았다.

더불어, 관모난은 소설이나 극본 창작뿐만 아니라 문예이론의 소양이 풍부한 작가였다. 문학 창작에 대한 다양한 문론성 문장을 발표하고, 동북의 생활상과 경험을 여러 편의 잡문으로 써내며 1950~70년대 사회주의 문예 시기에든 붓을 놓지 않았다.

3) 고뇌하는 혁명가: 「紫花與紅葉」(1979)와 「哈爾濱之夜」(1980)

문학이 끝난 뒤에도 관모난은 창작의 끈을 이어간다. 소설 「紫花與紅葉」(1979)와 「哈爾濱之夜」(1980)은 지하공작을 하던 유격대원이 삶을 묘사한다. 일본 특무와 경찰의 눈을 피하던 1930, 40년대의 긴박했던 당시로 독자들을 소환한다. 펜 끝은 여전히 하얼빈과 항일을 그려내지만, 중요한 임무를 띤 항일 전사들의 마음엔 무거운 책임감만큼이나 흔들림 없는 각오와 결심보다 주저하고 의심하고 반성하는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엿보인다.

소설 「紫花與紅葉」에선 지하 당 조직을 부활시키는 준비 작업을 명 받고 지역에서 활동했던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양송(楊松)과 리젠저우(李劍舟)는 열흘 전쯤 테리(鐵驪) 칭청산(慶城山)에 있는 항련제3로군(抗聯第三路軍) 총본부(總部)에서 새로운 유격 지부를 만드는 준비 작업을 위해 이곳에 왔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지하 조직을 부활시키기 위해, 양송은 과거에 활동했던 부대들을 돌며 남은 총과 탄약을 모으는 임무를 맡았고, 리젠저우는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는다. 양송이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강물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리젠저우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리젠저우는 다음날 양송의 소식을 수소문하러 시내 거리로 나가고, 적의 눈을 피해 길에서 마주친 빨간 과는 노인과 함께 젼빙 가게에 몸을 숨긴다. 일본군은 얼굴이 붙어터진 양송을 끌고 다니며 한 패인지 확인 신문하고 있었고, 가게에서 둘은 마주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한다. 마지막에 젼저우는 끌려가던 양송이 ‘우리가 당이 준 임무를 완성했다’는 승리의 미소를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뜨거운 복수의 마음이 끓어오르며 ‘빨리 돌아가서 부대를 이끌고 구하러 오겠다’고 되뇌는다.

서튼이 되도록 여자에게 관심이 없던 젼저우는 당시 스물네다섯의 소학교 선생이던 양송에게 훈련소에서 사격을 가르치며 첫눈에 반하게 되지만, 양송은 그녀에게 혁명사상을 알려주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지하 당 조직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명 받은 양송과 리젠저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하려는 ‘혁명 전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을 겪는다. 제목인 ‘紫花與紅葉’은 젠저우가 양송에게 고백하며 준 머리핀을 의미하며, 양송은 일본군에게 붙잡히기 전 물건(총알과 탄약)과 머리핀 하나를 젠저우에게 전해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한다. 이는 그녀가 젠저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당의 임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양송의 과감한 헌신을 보면서 도리어 젠저우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혁명의 이상 사이에서 흔들린다.

방금 보낸 미소는 우리 함께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눈빛은 내게 무언가 더 말하고 있지 않았나? 자신이 이렇게 가더라도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겠다는 건가? 나의 전우,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번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부족함이 있으면 어찌 혁명가가 완성될 수 있겠냐고 말했던 너는 미련도 두려움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10)

젠저우는 중대한 역사적 임무를 지고 가는 ‘혁명가’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인내와 고통을 보여준다. 문화대혁명의 고초를 겪으며 관모난은 ‘사회주의’에 흔들림 없던 청년에서 고뇌하는 ‘혁명가’의 모습을 한 노인이 되었다. 작품 속에는 인도주의 물결이 밀려든 문혁 이후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소설 <哈爾濱之夜>(1980)은 지하 당 조직에서 활동하던 당원들의 비밀 접선과 그 과정에서 일본 특무에게 쫓기는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한 편의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쫓김함과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열흘 전, 지린성(吉林省) 반스현(盤石縣) 양징위(楊靖宇) 유격대에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웨이린(魏林)은 상처 치료 겸 하얼빈 지하 활동에 파견된다. 웨이린은 하얼빈으

10) “他心思痛苦地想：你方才的微笑像我說的是我們共同的勝利，可你的目光還在告訴我什麼呢？是說你就要這樣去了，什麼也不留戀麼？我還能不再見到你，我的戰友？這一切會都是太晚了麼？我知道你既不留戀，也不畏懼，因為你說過：缺陷又何嘗不是革命者的圓滿！但是啊……”。關沫南 著，《流逝的戀情》，哈爾濱：北方文藝出版社，1992，p.165.

로 오는 기차에서 노동자 리첸차이(李連才)을 돕게 되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한쿠이(韓奎)란 가명을 쓰는 지하당원과 접선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 사복경찰과 일본인 경찰의 추격을 받는다. 두 번째 접선 단서를 통해 중간책인 송(宋) 부인을 만나지만 송 부인과 함께 접선 인물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다시 쫓아오는 사복경찰을 발견하고, 교통수단을 바꾸고 이발소에서 이발 후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기지를 발휘해 추적에서 달아난다. 한밤중 사복경찰은 웨이린이 잠을 자던 작은 여관까지 들이닥쳐 얼굴 대조를 하지만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한다. 유격대에 있을 때 별과 달빛이 없고 세 끼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암담한 심정이었던 적은 없었는데…。 웨이린은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의 전투를 맞이할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한다.

소설은 웨이린이 사복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얼빈 도시 곳곳을 묘사한다. 하얼빈 기차역에서 따오와이(道外) 9도가(九道街)의 따자원(大雜院; 여러 가구가 모여 살던 뜰), 따오와이 6도가의 세탁소, 따오리(道裏) 강가 클럽 식당, 난강화원가오호(南崗花園街五號), 북안(北岸)의 판잣집, 따오와이(道外) 십이도가(十二道街) 시장, 따오와이(道外) 징향가(景陽街) 옆 대관원(大觀園) 시장 등등, 하얼빈의 다양한 지명들은 웨이린과 사복경찰 간의 숨 막히는 숨바꼭질을 실감 나게 완성하는 무대가 된다.

관모난 문학 창작의 큰 특징을 꼽자면, 대도시 하얼빈의 모습이 오롯이 재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철도의 단축선으로 러시아가 1901년 개통한 중동철로(中東鐵路)(또는 동청철로(東清鐵路)) 중앙에 새롭게 생긴 도시 하얼빈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대도시’였다. 하얼빈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전략지이자 중국 내지와 소련을 연결하는 중계지로, 당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으로 수입된 통로였다. 하얼빈에선 일찌감치 중동철로를 중심으로 소련의 노동자 운동이나 코민테른이 활동이 이뤄졌고, 선양이 일본에 함락한 후 중공만주성위원회(中共滿洲省委員會)도 하얼빈으로 이주하며 만주국 시기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관모난은 하얼빈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종, 계급, 빈부 문제와 항일 및 지하 공산당 활동 등을 이 대도시에서 사는 민중의 삶 속에 투영시켰다.

이 두 편의 소설은 모두 지하 당 활동을 소재로 삼아 당시 공작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당시 항일운동 상황을 가늠케 한다. 일본 점령 전후의 동북지방의 정세 변화와 지하 당 조직의 활동을 구현한 작품은 독자들이 당시 항일운동의 긴박했던 순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사회주의 학습과 이로 인한 투옥 경험, 그리고 항련 관련자들과 만남 등 일련의 경험을 거치며 하얼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온 관모난이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혁 이후 쓰인 소설 속에선 인물들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의심하며 생각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관모난의 초창기 소설에서 보여준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과 확신에 찬 모습과는 사뭇 대비된다. 문혁 이후 그는 다시 항련 소재를 다루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에 대한 성찰과 고뇌가 덧붙여진 후기의 항전 소재 작품은 혁명과 투쟁에 대한 더욱 풍성한 논의점을 제공하며, 깊어진 작가의 성찰과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항전 서사 속에서 그려진 여성 캐릭터도 주목할 만하다. 관모난은 항일유격대나 지하 당 활동을 소재로 한 소설을 여럿 썼지만, 그간 소설 속에서 여성은 식민세력에 이용당하거나 지주, 토호들에게 희생되는 등 주체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양송이나 송 누나는 혁명 과정에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문혁 이후 그의 작품에서 여성 혁명가의 형상은 보다 두드러진다. ‘만주/동북’을 관통하며 시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본 좌익 문인으로서 깊이 있는 시선이 후기 작품 속에 담겨 있다.

4. 나가며

만주국으로 변한 동북 지역에 남아 있던 중국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일본 식민지 시기의 문예 정책과 통제에 맞서며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만주국 시기 일본 세력에 협력한 이력이 있는 문인들은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관련 작품과 작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80년대와 90년대 발간된 동북 문학사들은 ‘5.4신문학-좌익문학-사회주의 문학’이란 문학사 발전과정 속에서 동북문학의 발전을 투영하고 있으며, 1930~40년대 동북 지역의 식민 역사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항일문학이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만주국 시기 ‘북만(北滿)’ 문단의 대표자로서 관모난은 사회주의 학습으로 체포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한간작가’라는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 있었고, 신중국 건국 이후에도 꾸준히 문학창작에 종사한 몇 안 되는 문인이었다. 만주국 시기 투옥 경험은 오히려 그를 항련에 관한 깊은 관심을 두게 했고, 신중국 건국 이후에는 항련문학의 창작으로 결실을 본다. 사회주의 문예가 압도 하던 시기 항련 소재의 창작은 그가 신중국 이후 마련한 글쓰기의 생존 공간으로 기능했다. 관모난의 만주족이란 소수민족 출신 배경은 문혁 이후 복권되며 중국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격려하고 지역 문학으로서 동북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문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그는 항련 소재를 오랜 기간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작가 정체성을 ‘항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문학’의 전통에 접맥시키려는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모난의 이 같은 정치 사상적 경험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오랜 기간 하얼빈 지역을 지키며 ‘동북문학’에 중요한 기둥으로서 펜을 놓지 않고 꾸준히 글을 써 내려갔다는 점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가 가진 문예에 대한 풍성한 식견은 여러 편의 문론성 글로 표현되어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준 바 있으며, 만주국 시기와 신중국 시기를 넘나드는 창작 열정은 단절된 두 시기를 이어주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중국현대문학계에도 동

북작가 관모난 창작에 대한 소개와 이에 적합한 평가가 필요하며, 관모난의 개인적인 창작과 특징에 대한 더욱 풍성한 연구가 기대된다.

參考文獻

- 고바야시 히데오 저, 이정선 역, 『일본의 아시아 침략』, 서울: 와이즈플랜, 2018.
- 김장선 저, 『만주문학 연구』, 서울: 역락, 2009.
- 김재용·김창호·유수정 엮음,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8.
- 나카미 다사오 외 지음, 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서울: 소명출판, 2013.
- 민정기 저, 고재원 역, 『나의 이웃』, 서울: 소명출판, 2017.
-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009.
-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서울: 역락, 2008.
- 요시미 순야 외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옮김, 『확장하는 모더니티』, 서울: 소명출판, 2007.
- 페이샤오통 저, 장영석 역, 『중국 사회문화의 원형, 향토중국』, 서울: 비봉, 2011.
- 프레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파주: 나남, 2008.
- 김혜주, 「만주국 문학 연구에 관한 일고찰」, 『중어중문학』 제89집, 2022
- 박장배,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인의 신장 등베이지역인식의 변화」, 『만주연구』 14집, 2012.
- 정형아, 「전후 중공의 동북지역 선점과 ‘동북항일군’의 역할」, 『역사와 실학』 37, 2008.
- 정형아, 「전후초기 중국 동북지역 적산처리를 둘러싼 중미소의 갈등」, 『탐라문학』 52호, 2014.
- 關沫南 著, 『流逝的戀情』,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1992.
- 關沫南 著, 『抗戰時期黑土作家叢書: 關沫南集』, 哈爾濱: 黑龍江大學出版社,

2011.

逢增玉 著, 『黑土地文化與東北作家群』, 湖南: 湖南教育出版社, 1995.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총10권), 沈陽: 沈陽出版社, 1996.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총8권),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

劉曉麗 主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총34권),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範慶超, 馬明川, 「論滿族作家關沫南的“曲筆抗戰”」, 『河北民族師範學院學報』第34卷 第1期 2014.

關紀新, 「中華全民抗戰期間的東北籍滿族作家——關於舒群, 李輝英, 馬加, 關沫南等」,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5期..2012.

何爽, 「滿族作家關沫南淪陷時期的小說創作」, 『北方文學』, 第24期, 2017.

逢增玉. 「東北解放區文學制度生成及其對當代文學制度的預制」, 『文學評論』第4期, 2017.

逢增玉、張遠, 「『東北文藝』與東北解放區文學」, 『晉陽學刊』 2016年 第1期.

秋石, 「雪壓青松憶沫南」, 『新文學史料』(02), 2006年.

周玲玉, 「滿族作家關沫南論」, 『民族文學研究』(04), 1985年.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of Literature by the Northeast Writer Guan Monan - From Manchuria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im, Hea Joo

The “Manzhou(滿洲)/Northeast(東北)” region entered the “Cold War” from “colonialism”, facing major changes in the way of governance and lifesty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 attempt in literary research to consider the transition to “Manchukuo(滿洲國)”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新中國)” from a continuous perspective. As a regional literature, the study of Northeast literature is separated from the era of “Manchukuo”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Guan Monan(關沫南, 1919~2003) is a writer who can be introduced as a link to continuous insight into literature in the Northeast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Guan Monan was a representative writer who steadily engaged in literary creation from ‘Manchukuo’ to ‘New China’. His literary creative life can be seen from the angles of “Harbin Left-wing Literature Incident(哈爾濱左翼文學事件)”, “Hanglian Literature(抗聯文學)”, and “A writer from ethnic minorities”. After serving three years in prison in 1941 for “Harbin Left-wing Literature Incident”, he wrote a full-fledged “Hanglian Novel”, which depicts the history of the struggle between the underground Communist Party organization and the anti-Japanese Democratic Alliance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the 1980s and 1990s, as local cultural research was activated, he was evaluated as a writer from a minority ethnic group,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his work to be newly evaluated.

His novels “兩船家”(1939) and “地下的春天”(1940) reproduce the appearance of capitalists and large cities in the 1930s and 40s, depicting class conflicts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仇敵”(1946) and “鵝頭與李海”(1947) depict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entering the anti-Japanese guerrilla force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father's generation and the son's generation. In the novels “紫花與紅葉”(1979) and “哈爾濱之夜”(1980), the appearance of

basement activities is described in detail, and the lives of individuals sacrificed for the cause and their anguish and reflection are more clearly revealed. Various studies and analysis are needed in the future for Guan Monan's literary creation.

Key words: Guan Monan, Manchukuo, Northeast Asia, Ethnic Minority Writers, Northeast Anti-Japanese Literature

투 고 일 : 2024. 10. 10. / 심 사 일 : 2024. 10. 15.~ 2024. 11. 15. / 게재확정일 : 2024. 11. 20.